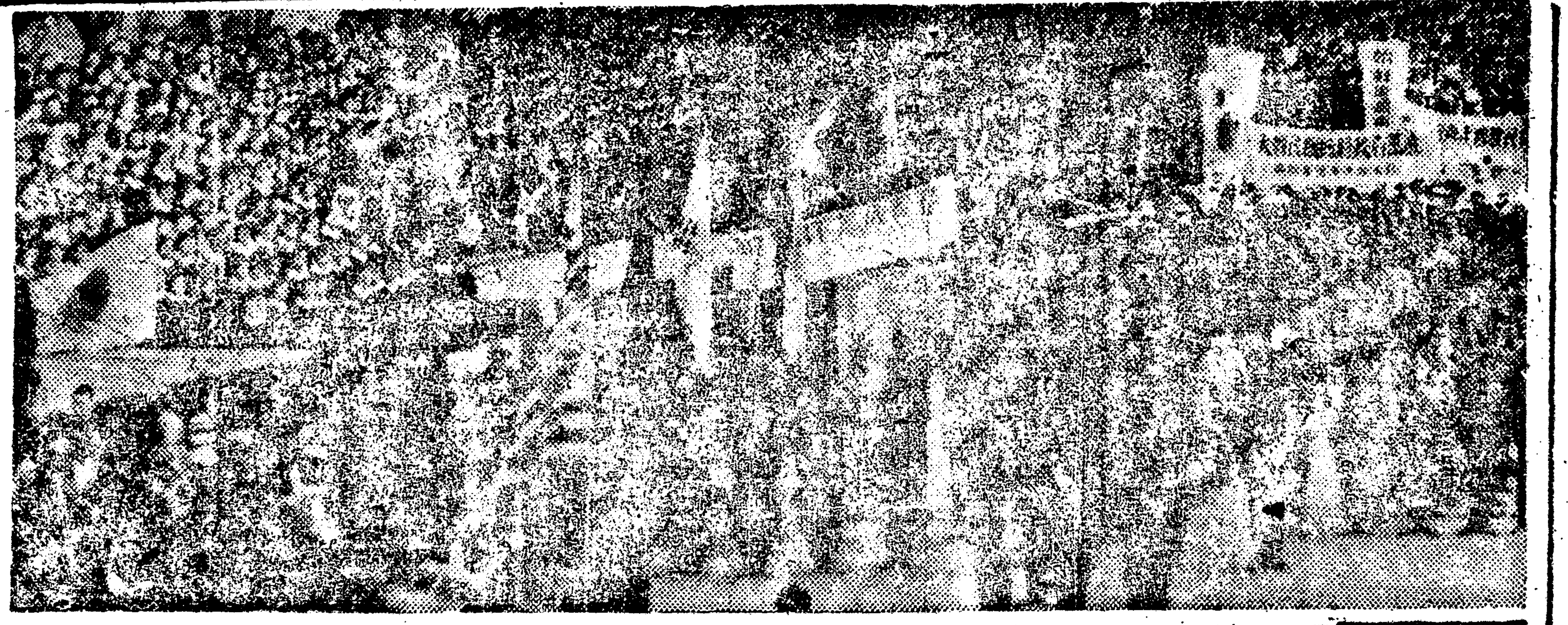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發行人 方應謨
電話本局 二八〇〇番



奉迎會場에 雲集한 團體와 民衆

社說

建國과 大衆의 要望 (一)

우리들 가다듬고 下落하야 새로히 생각하고 또다시 三省하나 우리의 앞길은 實로 重大하며 앞뒤의 重大함으로써 이 國內外 田舍은 三千萬의 全遂 命을 決할 重大한 岐路를 다시 面해지않을수업다. 우리는 이미 縱入 去하여온바이거니와 아제는 우리의모든國內、國外의 諸勢力이 한데모혓스니 이以上 더 最後의決定을 다른곳에求할수 업는마당에 이르럿다. 조커나납부거나 이하구에서울고 부되치고 앙켜서 最終의決定은 나올것이다. 그러나 勿論우리는豫定된것을 아무런한結論이라도 엇으로는것은아니다. 그結論이 올코 바르고 健實한路線에서 出發하도록. 그리고그出發이 지금이자리에서 決定지위질運命에 노혀잇기때문에 이처럼 마음을조이고 또한가슴아픈것외다. 이렇한 建國이 時急하고 모든 國際的情勢가 微妙한이때 우리의完全獨立은 果然어써한形態로 어느時期에 成就될것인가 獨立建國의 條件은 또한어써한方向을 取하여야 朝鮮民衆을爲한 참된民主主義의國家가 될것인가.

二

建國은 八月十五日 그날부터 우리의가슴안에 부푸러올은 우렁찬希望이엿다 그러나그것이 오늘날意識되고 展開되지안는理由는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社會的基盤이업시 各自意識 各派의志向에 사로잡혀 國際에대해主義主張을 부르짖고잇는때문이다 建國의基礎를 民主主義的土臺우에 세운다고하지만 封建的土地制度가그대로 朝鮮의經濟體制의 大部分을 占하고잇는現在 이社會的經濟的基盤의改善이업시 民主主義의國家이기 殷鑑不遠으로 日本을보아도明治革命以後近代資本主義體制가 急速히 發展되엿스나 天皇을中心한封建的寡頭的勢力이 堅牢한뿌리를박고 드디여 完全한民主主義는 達成되지못하엿든것이다. 그럼으로 오늘날 우리의周圍에서 浮動하는 온갓流派가 民主主義를 입으로 부르짓드라도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反民主主義의勢力에對한鬪爭이업는 一時的으로 民主主義를 假裝하고 政權을잡은뒤에는 過去의封建的專制的獨裁態度로써 人民에게 君臨하려는 存在에對하야는 果敢히 이를排擊하지안흐면 안되는것이다 그럼으로 建國의出發點에잇는 이瞬間이 重大한所以어에잇스며 經濟的平等이 國際的 要에對한 鬪爭이 建國의 第一條件이되여야할것이다.

三

우리로 建國은 以上과가튼封建的殘滓우에서 蠢動하는 政治的勢力을除外하고 朝鮮民衆의土臺우에 獨立되여야할것이다 이바正道이니 萬一民衆의意思와그 動向을無視하는 指導者라면 必然的으로 强權을濫用하야 獨裁의 『팟시즘』에 빠지게되는 少數者가 될것이다. 이런指導者는 아모리 自己自身이 善意와良識을 품은作者라도 不可避的으로 아래서 말한封建的專制的 勢力에 加擔하게되는것이다. 民衆을 無視하고 民衆우에 君臨하려면 그와反對되는 勢力을背景으로 利用하지안흐면안되는때문이다 現在 民衆은 하로밥비 朝鮮의 完全獨立을 渴望하고잇는것입니다 그러므로 完全獨立을 이룰 主體가 民衆인지 아닌지를 區別치못할것이다 ... 民衆的이라는것을 決코 民衆에게 合함으로써 ... 民衆을 爲한것이고 民衆의 土臺우에 세워진 것이여야 한다 이에우리는 建國의 條件으로 民衆的인것을 强力히 提議하는바다

金九主席도和答

衝天하는歡呼萬歲에

大韓臨時政府領袖에對한 全國的奉迎에앞서 臨時政府奉迎會主催의 서울市民擁行列은 一日午後一時부터 瑞雪이 휘날니는가운데 京城運動場에 모여서 奉迎節次를마치고 國軍、男女學生、生徒、各團體、各町民會 無慮三萬餘名의 長蛇陣으로 시작되엇다 이날 金九主席 李承晩博士 金奎植博士 李始榮 金尙德 嚴恒燮氏等 各閣僚가 政務多忙한 가운데도 時間을 틈내어 安國洞四街 朝鮮生命保險會社二層에나서서 國旗를흔들면서 行列의萬歲소리에 마추어서 萬歲를 불너주섯다 主席은 前後二時間나머지 行列이 끗날때까지 歡聲에 차오를 로 한번도자리를 세나지안코서 歡呼에應하야 側近들이 오히려 恢懼스럽도록 하엿다

正副兩主席 李博士와要談

統一戰線을 結成하야 바야흐로 未曾有의 重大關頭에 서서 時急히 國事를 收拾하고저 還國以來 晝夜로 盡瘁이업는 大韓民國臨時政府 金九主席과 金奎植副主席은 十二月一日 午前十一時頃 李承晩博士의 招請으로 敦岩莊을 訪問하야 午後一時頃까지 約二時間동안 重要會談을 하엿다

小作料는三分一

農商局에서再次强調

朝鮮이 進步的民主國家로 발전하야 將來 새國家를 建設하는데는 全國人口의 八割以上이 나되는 農民生活의 急速向上이 要緊한일이므로 軍政廳에서는 施政第一次로 지난十月五日 指令第九號로써 새로운 小作料를 制定하얏스나 아직도 이에對하야 不徹底한傾向이 업지안허 十二月一日 農商局에서는 再次 다음과가치 聲明하엿다 地主에對한小作料는 農作物과 現金中어느것이나 關係치안흐나 農作物의三分之一以上을 받는것이업다 따라서 調停所가設立된 地方에서는 ... 手數料 肥料 種子 ... 等 ... 調停所가設立된지 六十日以內로 土地契約을申請하기 바란다

온서울에臨時政府歡迎一色

臨時政府要人搭乘機

群山飛行場에着陸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未還要人 二十三名이 搭乘한 大型二機는 一日上海를出發하야 午後二時半頃 金浦飛行場上空에이르럿스나 着陸狀況이不良한關係로、不得已着陸을하지못하고 그냥南下하야 三時頃群山飛行場에 無事着陸하얏다 群山으로부터의 入京은 아직豫定되지안헛스나 飛行機로二日에올듯이생각된다

特別視察團組織

地方狀況을視察

軍政廳에서는 ... 十八名으로 組織된 特別視察團을 組織하야 各道에派遣하야 約二十日동안 各道의實狀을 視察시키기로되엇다 따라서 同視察團에서는 各道의 ... 記者團과 定例會見하야 ... 하리라한다

呂氏記者團會見日

朝鮮人民黨首 呂運亨氏는 ...

金融機關執務時間

十時부터午後四時

一日부터 各銀行其他金融機關은 平日午前十時부터 午後四時까지 土曜日은正午까지 執務하기로決定되엿다고 軍政廳財務局에서 發表하엿는데 이것은 冬期中各金融機關의 事務時間을 短縮하든 從前의例에依한것이다

日新紙幣發行禁止

【東京三十日UP發朝鮮通信】 ...

日本虐政三十六年 ⑦

奴隸敎育으로終始

朝鮮의얼을송두리채抹殺計畫

東洋의平和를 爲해서라는美名아래 힘으로써 朝鮮을合邦한日本政府와 總督府當路者는 朝鮮을統治함에當하야 먼저 朝鮮의 『얼』을 송두리채뽑어버리기에 着手하엿다 合邦에反對하야 獨立을主張하거나 또는意見을發表하는사람은 말할것도업시 모주리 逮捕하야 그들을極刑에處했을뿐만아니라 自己들이보아서 조금이라도 朝鮮民族의士氣를 북도을것갓다고 생각되는書籍은 모로 이를 實行한것이다 주리押收하야 불질러버리고 또 는 군데군데 削除刊行케하엿다 七、八歲되는兒童에게 읽키든 「童蒙先習」 맨첫장에 朝鮮民族의朝鮮을爲하야 興起하여야한다는意味의句節까지 抹殺하엿거든 其外의冊은 말하지안하도 알수잇는일이다 其中에도 醜惡한것은 朝鮮歷史에 關한冊이었다 ... 그들은 日本말敎育에汲汲하야 日語마디나하는사람은 더러노코 重用하야 一般에게 日本말배우기를 强勸하고 普通學校課程에도 朝鮮말時間은 一週日에서너時間도되지안하야 朝鮮사람으로하여곰 朝鮮말과 글을이저버리게하엿다 마츰내는 이여時間의 朝鮮말時間도 째어버리며 「國語常用」이라는標語미테學校에서는 六、七歲된어린이들에게 朝鮮말을쓰지못하게 하엿다 ... 에서는 日本말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할것도업시 ... 조선 사람에게는 敎育의 機會를 주지안하야 自己들이 ... 普通學校는 一面一校라는 ... 三十餘年이 지나 中學、專門、大學敎育은더말할것도업다 中學校는 그들의 ... 女學校 商業學校等을세우면서 朝鮮人을爲하야 ... 私立專門學校나 마음대로세우게 하고 ... 그들은 私立專門學校를 ... 許可하엿다가도 抑壓 ... 敎授陣이 不充分하나 ... 定員을 ... 試驗地獄이니하는말이 ... 許可하엿다가도 ... 日本에서 中學 ... 朝鮮學生들은 ... 그러나 그들이 「朝鮮의얼」을 ... 『日本人』을 만들려는것이엇다 ... 우리의 『얼』을찾자 ... 民이되어 ... 하기보다 ...

揚子江에貯水堰

美土地開拓局서計畫

【重慶二十九日發朝鮮通信】 美國土地開拓局은 揚子江에 大貯水堰建設計畫을 하고잇섯는데 今般 完成하엿다한다 이것은 世界土木工事上 最大한것이며 水力發電計畫中 처음이大規模한것이라고한다 ... 中國은 ... 農産物의 增産을 ...

日陸海省廢止、兩動員解除省新設

【東京三十日UP發朝鮮通信】 日本本土의 陸海軍 ... 解散 ... 一日 陸海軍省을 廢止하고 ... 第一、第二 動員解除省을 新設하엿다 ... 依하야 ... 될것이다

中央軍不遠奉天入城

【... 三十日發朝鮮通信】 ... 中國中央軍은 ... 奉天入城 ... 中央政府에 ... 第一段階가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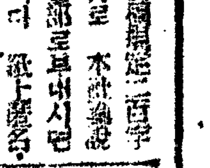
極東諮問委員會

【메르보론三十日發英文通信】 ... 極東諮問委員會는 ... 十二月末에日本을訪問할 豫定이라고 ... 二十八日 ... 日本에對한 ... 聯合國 ... 를決定하는것인데 ...

英戰死傷百廿萬

【倫敦三十日發朝鮮通信】 三十日 倫敦에서 今次大戰에서의 英國聯邦民 및 被害者의數를 公表하엿는데 ... 百二十萬 ... 英本國七十五萬五千 ... 加奈陀十萬 ... 濠洲 ... 뉴-질란드 ... 南阿 ... 印度 ... 二萬六千名 以上이 ... 의戰傷病者에關한 統計다

夜間中學의設立



... 우리는 ... 夜間中學 ... 배우고 ... 사람입니다 우리는 ...

軍政廳辭令

◇軍政廳... 課長 ... 一日午後 ... 朝鮮人의 ... 各道 ... 課長 ...

◇軍政廳에서는 十一月二十四日 ... 朝鮮敎育 ... 十二月一日 ...

人事

▲... ▲... (東京大學 ...) ...

八一錄

◇一日은 ... 行列로 ...

◇하루는 ... 이날에 ... 自主獨立 ...

◇우리의 ... 文化 ... 軍政廳에서 ...

◇ ... 朝鮮 ...

◇ ...

◇ 제발 ... 民이되어 보세 ...

三千萬民衆의至情어린 歡呼와感激의波濤

莊嚴! 臨時政府奉迎의旗行列

짓밟이고 허무러진 조국을 뒤에남기고 기어히이강산 이나라를찾고야만다는 철석가튼 一념을가지고 고국을 떠난지二十七년! 그동안 풍찬노숙의가진고초을 겪거기면서 새로놓지 전해동으로 좋은 비장한외교수단으로 광복(光復)에 一생을바친 우리의위대한지도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김구(金九)선생이 그리운고국에 해방의발을드되 노혼지도벌서 一주일나머지! 오래그리고 그리든이버지를 마지하는듯한지정으로이를 서배를을 환영하려는 감정은 三천리이강산에넘치고잇다

이러한 지정이 뭉치고엉키어 오늘一일에는 임시정부봉영회(奉迎會)주최의 기행렬이 막혓든 민족적감정의 첫물결로 터저나온것이다 지난八월十五일의 감격이 너무도돌연스러웟든의 과도엿다면은 오늘의 이감격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벅차 정성껏울려나리는 감격의 우소슴이리라 이날지한회장인 서울운동장에는 국군(國軍)학생 시민등! 사람의물결 기행물결물결 물결로이루어 여지가업는 장관속에 오후한시정각 윤보선(尹潽善)씨의사회로 봉영회절차는 시작되엇다 오세창(吳世昌)씨의 개회인사 국가봉창에이어 리인(李仁)씨로부터 봉영문(奉迎文)랑독 서상천(徐相天)씨의 행진에대한 주의사항지시가잇슨다음 뭇으로 권동진(權東鎭)씨의 선창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만세를 비롯하야 김구주석, 국부(國父) 리승만(李承晩)박사 만세三창을 하늘이라도깨여저라는듯이부르고 감격과흥분가운데 씩씩한국군의 군악대를선두로 회장을떠나 행진은시작되엇다

거리에萬歲聲震動

金主席、李承晩博士도感激의答禮

가一예찬 대한민국임시정부봉영기행렬은 목철출모르든 장사진(長蛇陣)을지어 동대문(東大門)으로부터 종로(鐘路)로 화신(和信)앞을지나서 안동네거리 조선생명(朝鮮生命)본사 앞헤와서 잠시멈춘다 이쌔동이층에는 봉영에열광한군중에 답례하려고 김구선생 리승만박사 기다리고인들이벌서三十분전부터서서기다리고잇다 우리들의김구선생은 중앙으로 오른편에는리승만박사 왼편에김규식(金奎植)박사 다시김상덕(金尙德)문화부장 엄선전부장 다시오른편오로 리시영(李始榮)씨가나란히서게서다 괴물이 악혀와서 소리놉헤 만세를 부를새마다 선생은 감격에 어린웃듯 꽉기를흔면서 만세를 불러준다 지구리승만박사선생눈에는 무엇이 빗나는듯 이쌔부터 봉영을출발하는듯 서선(瑞善)이 휘날린마 노선생은 [illegible] 써세워놓듯 울지이를을 모료마 얼마나 노지사의 가슴은감격에 벅찻스랴! 그리고 마음로부터 몇번이나 아직도 가시덤불가튼 건국의 구상과 국세결심을 하섯스랴! 행렬은 이리하야 감격속에싸히채로 서울을 한바퀴돌면서 시청앞헤와서 해산되엇다

尹先生遺骨은 政府에서奉還

고 윤봉길(尹奉吉)선생이고 [illegible]

하 충남예산군덕산면(德山面) [illegible]에 잇는 윤봉길선생 유골봉환위원회에서는 수일전김구주석이 직접지상을통하야 순국열사의 유족을찾나고 싶다는 기사를보고 봉환위원대표 김관봉(金觀奉)씨를 서울에 파견하게되어 동씨는 二十九일 오후한시반 죽첨정숙사로 김구주석을방문하여 간담하엿는데 회담후김관봉씨는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나는 위원회를 대표하야 석재일본석천현금택(石川縣金澤)지방에 매장되엿다고하는 윤선생의 유골을 봉환하고저 위원회를 결성하엿습니다 김구주석에게 말슴드렷드니 주석이 말슴이 이기쁜자입니다 우리정부가 당연히할일이요 일지방이 문제가아닌 전국적사업으로 로 하여 봉환하겟스니 지역에서결성한 위원회는 곳해산하고 정부이 조사에 협력하여주면 가급적속히 [illegible] 에 참석하게 하겟다고 말슴하셧다 따 나도주석의말슴에 찬동하여 [illegible] 선생유족은 지금고향에 [illegible] 부인 [illegible]이 게십니다

金主席에奉迎文을奉呈

림시정부봉영회(臨時政府奉迎會)에서는 봉영기행렬 대회석상에서결의된 다음과가튼 봉영문을 권동진(權東鎭)씨로부터 김구주석에게 봉정하얏다

奉迎文 殘忍하기 比할데업슨 倭賊의 桎梏下에 呻吟하든 祖國을 解放시키기爲하야 春風秋雨 三十星霜을 萬里異域에서 南轅北轍하며 온갓苦難와 가진困苦를 조곰도 介意치안코 血戰千歸하야 마침내 初志의 偉業을 達成하고 凱旋하신 大韓民國臨時政府를 奉迎함에當하야 우리는 最大의敬意를表하나이다

八月十五日 解放의 기쁜消息을 듯게되자 우리三千萬同胞는 모두 狂喜乱舞를 禁치못하게되는한便 一部不純分子의 亂舞하야 一般大衆은 牧者업는 羊의세처럼 依安할바를모르고 헤매이면서 우리政府의 還都만 苦待하든中 맞박게 우리最高指導者의 한분이신 李承晩博士의 歸國을 맛게되자 우리는 마치 이리세속에 뜨렷든 어린羊이 牧者의 손에를 돗든것처럼 기쁨에넘치어는물을 禁치못하며 아울러 한활의힘을 엇게되엿스나 한便으로 慶에備하는 우리政府가 한時라도밧비 돌아오시기를 一層더 소원하야 기다리며 아침저녁으로 西天만 바라보든 우리로서오늘날 우리臨時政府의 還都와 金九主席以下 閣員諸位의 還國을 [illegible]하게되매 [illegible] 測量키어려운感激이야말로 三千萬同胞가 마가치 늣끼는바올저운바입니다 그러나 이제우리의아페는 아직獨立의 完遂業이 엿스니 어서 우리祖國의 完全한 獨立國家를 하로라도速히 實現하도록 더욱努力하시기를 懇切히바라며 우리들은 온힘을다하야 臨時政府의 모든命令과指導에 絶對服從할것을 굿게맹세하나이다

檀紀四二七八年十一月三十日

臨時政府奉迎會 一同

사진은 임시정부 봉영기행렬의 국군행진 과(上) 여학생 행렬(下).

美舟艇을타고同胞歸還

十一月卅日、三千名群山에入港

군정청외무과장 『룹돈·비·엔다슨』소좌가 오늘十二월一일에 발표한바에의하면 처음으로 미국상륙용주정(上陸用舟艇)이 三천명의 조선인귀국자를실고 十一월三十일군산(群山)에 입항하엿다한다 이상륙용주정은 일본에서 조선인수송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게됨으로 조선인귀국자에게는 편리하게되리라고 하엿다

고 조선인 [illegible] 귀국하엿다

十一월二十八일현재까지 [illegible]일본인二十九만四천六백八十명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철퇴하고 조선인四十八만六천六백五十九명이 귀국하엿다

四十八萬六千 十一月廿八日現在 歸還同胞數의總計

十一월二十八일 일본인五천五백六十七명이 조선에서 철퇴하

朝鮮醫士會서 東洋醫專設置

전선二천五백여명의 한방의생(漢方醫生)으로 조직된 의생회(醫生會)에서는 十一월三十일오후一시 시내동명관(東明館)에서 각도대표백五十명이 모혀 종래의의생회를 조선의사회(朝鮮醫士會)로 개칭하고 새로운 [illegible]

群山서日本軍 需品爆發死傷

十一월二十일 군산(群山)에서는 일본군수품이폭발하야 三백一집五명의 해방흥왕 사상자를내엿다 그가운데는 一집六명의미국군인도 석겨잇서 죽으자라 읍내엿는데 구중一명대다 十一월九일에도 북군에서이와가튼사건이 발생하엿는데 고 [illegible]

美術品과古蹟保存指令

一般의協力要望、違反者는嚴罰

세계문화사상에 찬연하고 천고에판정하는 신라(新羅) 고려(高麗) 백제(百濟) 리조(李朝) 등 [illegible] 각시대의문화의 악기여마지안는 미술품과 고적을보존하여 후손에게 하자는 취지로서 군정청학무국에서는 제一집一호로 군정청 [illegible] 일반에 계조선고대미술품과 고적보존에 협력을 요망하얏는데 만일이법을 위반하야 고적을 [illegible] 하는자는 엄벌을 [illegible]이라한다

실망분이 나되는 [illegible] 에 [illegible] 에의하면 [illegible] 최대의 [illegible]이엿다고한다

運動競技

大學專門蹴球開幕

朝鮮文化聯盟主催 第一回 全朝鮮大學專門蹴球選手權大會는 一日午前十時半부터 [illegible]에서 參加校八團體의入場式이잇슨後 [illegible]對[illegible]의 開幕되엇다 第一回戰 成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京醫 1	(1 0 / 0 0)	0	齒醫
京大 4	(3 1 / 0 0)	0	藥專
普專 4	(3 1 / 2 0)	2	世專
遞信 0	(0 0 / 0 0)	0	大學

市內의籠球團體

八月十五日 解放以後 寒一쏘團體가 各部門에通하야생기코잇는데 其中에도 男女합하야 王一쏘인 籠球團體는 朝鮮아마튜어籠球聯盟을 總本營으로하야 다음과가튼 團體가 組織되여잇다

▲朝鮮아마튜어籠球聯盟(鐘路) ▲高麗籠球團(鐘路) ▲朝鮮籠球俱樂部(黃金町三丁目) ▲서울籠球團 ▲YMCA籠球部(鐘路二丁目) ▲中央籠球會(苑西町) ▲京城籠球俱樂部(鐘路二丁目) ▲鐵道籠球俱樂部(漢江通四丁目) [illegible]

鐵道局內蹴球大會 철도국에서는 국내축구대회를 오는八, 九양일 정오부터 용산철도구장에서 개최한다

各線列車增發運行

通勤、通學難緩和 一日부터時間改正

삼인적 여객수송난을 따소한화하며 동시에 통창을이루는 통끈 통학에 이바지하고자 철도국에서는 십二월一일부터 열차시각을개정하여 운행케 되엇습니다 군정당국의 사정으로인하야 일부열차명과 시간을 늦히시 一일부러 실시十二월一일부터 각선열차를 증발하야 다음과가치 운영한다

이중발열차를말하면 경부선(京釜線)은四회 경의선(京義線)을二회 경원선(京元線)을一회식을증가 감축발되는 셈이나 그러나 경경선(京慶線)만은 변경업고현행대로운행한다

◆京釜線 (一)五七列車(第一三二) 大田發二二時○分 京城着二八時 (二)五八列車(新) 京城發九時四五分 大田着十五時二分 (三)[illegible]列車 天安發[illegible]時 京城[illegible] (四)列車 京城發十五時四○分 [illegible]着一八時四五分

◆京仁線 (一)七○四列車 仁川發六時一○分 京城着七時一○分 (二)七二七列車 京城發六時二○分 仁川着七時三二分

◆京義線 (一)一○八列車 開城發四時四五分 京城着七時一○分 (二)一○三列車 京城發十五時四五分 開城着十九時○分 (三)一○一列車 開城發五時四○分 龍山着八時三三分 (四)二○五列車 龍山發七時二○分 開城着十時○分 (五)二一○列車 開城發十九時三○分

◆京元線 (一)三○六列車 東豆川發六時三五分 京城着七時五○分

서울에初雪

북눈이나렷습니다마 해방의一九四五년도 저무려가고잇는 섣달초하루날오후 조선의수도 한양에서는 림시정부를 환영하는 한중의기행렬이 호화로게거행되엇는데 우리의앞날을 축복하는듯 솟송이가튼 첫눈이 나려 흥분한거리의가로수와 어지러운 사람의마음을 깨끗이씻어주고잇습니다 서저어린 이눈을밟으며 국민의강도 이생에 길이복을하겟지!

色鉛筆

첫눈이와 함박눈이다 명년의 풍년을 약속하다뭇이가 이분이바로 우리임시정부며 확혹을출하하는 기행렬로 전시중이 엄숙 하고도 감격에 넘친 이날이 얼은것을 생각하면 금년의 첫눈은 더 아름답고 더 상서 스러운 것이엇다할것이다▲생각컨대 이집칠년 고엽마나 좋기찬 역사이엇든가 조선민족 정래의것세정신을 발휘하야 모든 고난가운데 싸워온분들에게 봉영의뜻으로 전시민이 총외했습은 맛당한례절이다▲우리가 언제나 반만년의 우리역사와 고유문화를가진것을 자랑하는

우리는 삼천리강산의 민족광복운동에서 이일념면의 역사를가진 임시정부가 잇섯슴을 생각하면 재광처안를수업다 역사가기록될해서 다시근역사를엮거남길것이기에문이마 역사업는곳에 새역사를창기하어라 ▲그래고 행렬중에보니 정졸중의 미국헌병이 행렬선두의 우리태극기를 보면 그때마다 엄숙히 경례를한다 내나라내 국기를 사랑하기세문에 남의 것에도 존경을바친다 우리민족의 역사의 정신을 표하는 국기 우리전민족의 방향을 말하는국기 ▲우리는 우리국기압해 새로운결의를가지고 다시금 맹서를 바처야할것을 노래하다

라디오 122

◆朝 ▲午前七、○○ 時報 ▲同七、○五 音樂 ▲同八、○○ 時報 ▲同八、○五 音樂

◆晝 ▲午後○、○○ 時報 ▲同○、○五 音樂 ▲同一、○○ [illegible] ▲同一、三○ 放送 ▲同二、三○ 音樂 ▲同三、○○

◆夜 ▲同六、○○ 時報 ▲同六、三○ 어린이 ▲同六、四五 [illegible] ▲同七、○○ 時報 ▲同七、三○ 音樂 ▲同八、○○ 서울放送合唱 ▲同八、三○ 世界[illegible] ▲同九、○○ 時報 ▲同九、四五 音樂

曆

七日(日)曜日 ▲日出午前七時[illegible]分 ▲日入午後五時一五分 ▲月出 ▲月入 ▲滿潮午前[illegible] 午後[illegible]

十二月一日 京城에初雪이잇섯다 昨年에比하면 十四日이늦고 平年에比하면 十二日이늦다

氣象情報

概況一高氣壓은 滿洲下流에七七六 「미리」 高氣壓이고잇서서그勢力은 朝鮮에까지 뻐치고 잇스나 低氣壓은 不連續線이 南滿洲를 北쪽으로부터 南北쪽으로 새치고잇서서 東으로 移動하고잇는모양임으로 朝鮮은 눈이오는곳도잇다

曇天後晴天

豫報一京城地方은 처음에는 曇天이나 추후에는 晴天이된다 氣溫一十二月三日朝 最低溫度零下八度一分

家庭과文化

基本組織과統一戰線

● 尹 [illegible]

文化는 政治의 [illegible]하는 사가 [illegible] 합이잇다 [illegible] 治로서의 特殊性이잇 고 文化는文化로서의 自的 方向으로 [illegible]하나 相互間에 [illegible] 그러나 文化가 政治의隸屬物은 안이다 어느 非常時期에는 政治와의 連結이 [illegible] 强要되는때도업지안타 [illegible] 民族的解放과 國家的自主獨立을 要求하고잇다 그러나 統一戰線을 [illegible]로 [illegible] 統一이어서는 안된다는것은 누구나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統一을爲한 統一이란 統一戰線에 [illegible]와 文藝을 가저올뿐만 안이라 分裂을 前提한 合同以外에 아모것도 안이다 우리는 文化의方面에잇서서 國家的民族文化建設의 根本的問題와 封建的文化殘滓의 [illegible] 文化와 [illegible] 解決하지못한 民族文化人이 [illegible] 宗敎하기爲한 [illegible] 運動은 [illegible] 現段階에잇서서 우리에게 [illegible]

特殊性이 잇서

[illegible] 우리는 現段階의 [illegible] 實上 [illegible] 能조차 [illegible] 라 文化 [illegible] 에 [illegible] 어느 時期에 [illegible]의 基本組織이 不可能하며 [illegible] 業 [illegible] 이다

現段階가

[illegible] 누구보다도 [illegible] 하고 [illegible] 要求가 [illegible] 되엇다 (계속)

新刊紹介

▲新天地 [illegible] ▲[illegible] 一東方文化社發行 [illegible]

三和藝術舞踊團

解放第一回大公演

朝鮮舞踊의天才 女流名人 歌謠界의名星 作曲界第一人者 舞踊界의巨星 總動員

三金張南李孫仙 允世仁鳳牧 和心貞樹龍入考

後援 三和興業相互社

12月6日 부터 大陸劇場

嫁母招聘 [illegible]

安村康一郎 [illegible]

三中堂 京城府鐘路[illegible]

라듸오部分品 各種入荷案內 서울電機商會

別府洪業案內 [illegible]

求職 [illegible]